

대촌동에 축구장 조성…모두가 누리는 체육·문화공간 탄생

양과동 SRF 시설 주민 지원사업 추진…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인근 9862m² 부지 종합형 준경기장 규모

광주시 남구 대촌동에 주민 숙원 사업으로 축구장이 조성된다.

양과동 SRF(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 설치를 계기로 시행된 주민 지원사업으로 쌓여온 예산이 대규모 시설 조성으로 전진되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대촌동 일대에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만큼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해보인다.

광주시 남구는 3일 “대촌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축구장 조성사업이 국토부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며 “도시계획시설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 등 남은 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촌동 축구장은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인근 9862m² 부지에 95m × 68m 규모의 준경기장으로 조성된다. 관리동 1135m², 주차장 1540m²(44면) 등이 함께 들어서는 종합형 체육공간으로, 주민·학생·동호회 등 다양한 이용층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대촌동 주민숙원 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았던 지원금이 사업 발굴 난항으로 5년차 예산인 25억원 이상 누적된 가운데, 주민 요구로 ‘체육시설 조성’이 의제로 확정되면서 총 55억 규모로 추진됐다.

남구는 지난해 12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안을 정리했고, 올해 2월까지 사유지 보상과 토지 매입을 모두 마쳤다.

당초 남구와 대촌동주민자치회는 빛고을농촌테마공원에 대촌동을 상징하는 10~12m 규모 철제 구조물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공공복리와의 연관성이 미흡하다는 의견과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같은 재원이 투입되는 이번 축구장 조성사업이 당초 체육시설 부족을 호소해왔던 주민들에게 활용도 높은 지원책이 될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뒤따라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광주시 5개구 중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인구대비 공공체육시설의 비율은 가장 낮다.

전체 면적 60.9km² 중 61.9%인 37.75km²가 개발 제한구역이며 공공체육시설은 5개 구 중 가장 적은 12개, 축구장은 2개에 불과하다.

해당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성상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승인 절차를 밟는데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남구는 사업 예정 부지가 기존 농지인 만큼, 지난 2024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적성도 평가’ 협의를 거쳐 체육시설로 전용 가능 판단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다섯 차례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해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협의했다.

국토부 현장심사를 통과해 지난 9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남구는 5차례에 걸쳐 계획서를 보완해 11월 20일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

당초 남구는 고정 관람석 설치를 계획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사항으로 인해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 스탠드 4기를 축구장 전면부에 두개씩 이어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총사업비는 55억 원 규모로, 보상비 30억 원은 대부분 SRF 관련 주민지원금(25억 원)과 구비로 충당됐으며 공사비 25억 원 중 19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신청해 12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남구는 해당 축구장을 인근 공원·야영장과 연계해 주민 체육대회뿐 아니라 청소년 참여형 문화행사 등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대촌동 축구장은 청소년과 주민 누구나 쉽게 찾는 생활형 체육·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남은 행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메리 크리스마스~

광주시 서구는 지난 1일 운천저수지 바닥분수대 광장 일원에서 서구 기독교교단협의회, 서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 점화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서구 제공〉

‘한강과 함께 걷는 문학의 강’

북구, 노벨문학상 1주년 기념 작품제작·가치 재조명

8~14일 중흥도서관

광주시 북구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작가의 작품세계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광주시 북구는 오는 8일부터 7일에 걸쳐 광주시 북구 중흥동 중흥도서관에서 ‘한강과 함께 걷는 문학의 강’ 행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노벨문학상 수상일(12월 10일)을 전후로 주민들과 노벨문학상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한강 작가 문학강연, 어린이 문학 체험, 주제 도서 전시, 작품 필사·메시지 작성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문화강연은 강지희 평론가가 강사로 나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시대의 아픈 역사와 인간의 존엄을 다른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의 서사와 문학적 메시지를 탐구한다.

어린이 문학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강 작가 문학 속 핵심 주제인 ‘기억·공감·치

유’를 중심으로 함께 책을 읽은 뒤 무드등과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이 이어진다.

기념행사 기간 중 중흥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한강을 만든 책들: 작가의 서재를 엿보다’, ‘무동의 문학, 세계를 향

하다’ 등 전시가 열려 이용자 누구나 한강 작가의 인생 도서와 제1회 무등문학상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강 작가의 문장을 필사해보는 ‘필사로 만나는 한강’, 한강에게 응원 메시지를 넣기는 ‘한강에게 전하는 한마다’도 상시 운영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한강 작가의 수상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민들께서 문학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학의 성장과 문학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서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최근 쿠팡·KT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광주시 서구가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구는 지난 1일부터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저장매체(하드디스크HDD, USB 메모리, 메모리 카드, CD·DVD 등)를 전용 파쇄기로 파쇄, 저장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파쇄 과정은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상 서구민뿐 아니라 서구 소재 회사·학교 등에 다니는 생활권자도 포함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서구청 회계정보과로 전화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단 배터리가 내장된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는 화재·폭발 위험으로 인해 파기 대상에서 제외돼 저장매체만 분리해야 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동구, 장애인 수요 반영 ‘장애인화가계 지도’ 배포

광주시 동구가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친화적인 가게들을 소개하는 특별한 지도를 제작 및 배포한다. 광주시 동구는 4일부터 ‘동구 장애친화가계 지도’를 일반형, 접두형 두 가지 종류로 나눠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도는 동구 평생학습관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들과 조선대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협업해 제작했다. 동구가 올해 상반기 지역 내 식당·카페 2119곳을 전수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도시 환경을 직접 분석,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다.

동구 평생학습관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실증 점검, 장애인 참여형 접근성 기준 재정의, 접두·QR 기반 음성 안내 콘텐츠 개발 등 과정을 거쳐 지난 1일 결과물을 내놨다.

/윤준영 기자 yoon@

지도에 표시된 가게별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면 음성 안내를 듣고 네이버 지도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각 가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광주시 내 음식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공유하는 플랫폼 ‘더편한세상’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다.

동구는 지도를 동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해당 가게, 동구 평생학습관 등에 배치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자별 없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 동구가 지향하는 목표”라며 “장애인화가계 지도는 보편적 접근성 도시로 향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23년 장애인을 위한 접두 요리레시피 북을 발간했으며, 지난해에는 접두 뷔티 가이드 북도 제작했다.

/윤준영 기자 yoon@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